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Classification of the Housing Lifestyle in Urban

최 목 화*
Choi, Mock W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housing life style. Housing life style was measured using four variables: furniture usage pattern, space usage pattern, family living pattern and heating system.

A final instrument was developed through the two stage pilot surveys. The respondents were 1,292 homemakers of the middle and high economic classes in Seoul and Daejeon, selected through stratified random sampling techniqu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computer packages. The statistics used were frequency, percentag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X^2 , and cluste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ve representative types of housing life style were found through cluster analysis. They were conventional minimum level life style, conventional optimum family-centered life style, eclectic family-centered life style, contemporary optimum family-centered and contemporary social, leisure-oriented life style.

I. 연구목적 및 배경

거주자들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모델로서 대표되는 주택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와 욕구를 표현하고자 한다. 인간의 요구와 욕구의 표현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치의 실현은 질적인 생활로 연결되어 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선택과 수행을 통하여 질적인 생활을 보여준다. 즉, 그들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생활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들이 한 집단에 의해 공통된 형태로 나타날 때 이것을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생활양식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동료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Feldman 등(1975)은 생활양식은 하나의 집단 현상이며 생활의 여러면에 침투되므로 생활의 한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양식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Max Weber(1968)는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공통된 생활양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권위 수준에서 비슷한 생활양식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의 생활양식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 즉,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지역에 의해 달

* 정희원, 한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라지며 또한 사회, 문화수준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활양식을 인정하며, 생활양식의 결정요소로 고려되는 행동패턴은 수입, 교육,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계층은 직업, 교육수준과 함께 생활양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변인으로 흔히 사용된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주게되므로 주거생활양식은 주택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새로운 주거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주거문화와 형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거생활양식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주생활의 많은 변화 양상은 주공간과의 대응관계로서 표현되는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며, 거주자들의 삶과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진 것으로 중요한 행태자료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주택계획을 위해서는 주택내에서 일어나는 생활양식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주거생활양식의 경향을 파악하고, 주거생활양식의 유형을 분류하므로써 미래 주택계획의 올바른 방향제시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현대생활에서 대표되는 주거생활양식의 유형을 분류한다.
- 둘째, 현재 주거생활양식의 영향변인을 구체화한다.
- 셋째, 현대 주거생활양식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주거생활양식의 관련 변인들

은 2차에 걸친 실증적인 기초조사 자료¹⁾에서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방법으로 하였다.

표집자료²⁾는 서울과 대전에 거주하는 중류층 이상의 주부 1,292명을 대상으로 하여 유층군집 표집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자료처리는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에 의뢰하여 IBM3032에 설치된 SAS package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첫째,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Cluster Analysis로서 최적분리기법(Optimizing Partition) 가운데 Anderberg의 "nearest centroid sorting metho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택특성 변인 가운데 주거생활양식의 영향변인을 찾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하였다.

셋째,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생활양식과의 차이 검증에 위해 교차분석(X^2)을 하였다.

III. 용어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주거생활양식의 관련변인인 가구사용, 공간사용, 난방방법,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1. 가구사용

가구사용은 현대 주거생활양식이 점차 입식화되어감에 따라 그에 영향을 주는 가구와 기기 및 시설에 대해 사용빈도 및 소유여부를 조사한다. 가구와 기기 및 시설 8가지 종류³⁾를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좌식형, 절충식1, 절충

1) 기초 조사자료는 최목화(1987)의 '현대 한국 주거의 질적인 수준 예측을 위한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 표집자료는 최목화(1987)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가구는 입식가구로 대표되는 소파, 식탁, 침대이며, 기기 및 시설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세탁기, 부엌작업대로 한정하였다.

식2, 입식형으로 구분한다.

2. 공간사용

공간사용은 주공간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종류에 따른 공간 사용의 분화 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다. 즉 공동생활공간, 개인생활공간, 가사작업공간을 중심으로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⁴⁾들이 어느 공간에서 주로 일어나는지를 조사한다.

3. 난방방법

난방사용방법이 주거내에서 일어나는 활동 및 공간사용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조사하고자 한다. 난방방법은 기름보일러, 개스보일러, 연탄보일러, 새마을보일러, 연탄아궁이로 분류한다.

4. 현재 주거생활조건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생활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1단계 생리적 건강성, 2단계 안전성, 3단계 주변환경성, 4단계 사회성 및 사고, 5단계 심미성, 6단계 자아실현성, 7단계 신분상징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단계별 구분은 Guttman Scale 측정방법으로 순위체계⁵⁾가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거생활양식의 관련 변인 4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지역은 대도시인 서울과 대전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중류층 이상⁶⁾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한계점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일반사항 및 현재 주거생활조건

1) 일반사항에 대한 고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부부의 연령, 가족수, 주부의 교육수준, 가장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부의 연령은 30대와 40대에 주로 분포(70%이상)되어 있었다. 가족수는 대도시 평균 가족수인 4인~5인인 가구가 54.8%로 가장 많았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3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졸이 35.7%로 나타나 고졸이상이 전체 가구의 71.9%로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직업은 사무직이 39.4%, 중급관리직이 21.4%, 판매 서비스직이 15.5%, 고급관리직이 10.6%, 노동·무직이 8%로 나타나므로서 본 조사 대상자들을 중류층이상의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소유상태, 난방방법, 거주기간과 주택건축연한, 주택시설 및 소유기와 가구를 조사하였다.

주택유형은 양옥식 단독주택이 3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한옥식 단독주택 19.7%, 저층아파트가 18.7%, 고층아파트 14.8%,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12.1%, 기타 3.1%로 비교적 각 주택 유형별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상태는 자택이 76.1%로 가장 많았고, 난방방법은 연탄보일러가 48.3%로 가장 많았고 기름보일러 30.1%로 나타났으며, 연탄아궁이 9.1%, 새마을 보일러 8.4%, 기타 1.5%이었다. 거주기간은 1년~3년미만이 가장 많아 단기거주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주택건축연한은 13년 이상된 주택(19.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서 우리나라 도시에 노후된 주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

4) 본 조사에서는 12가지 활동을 조사하여 안방침실형, 질층형, 거실침실형으로 구분하였다.
5) 최목화(1987)의 '주거가치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에서 그 순위체계를 위한 구성이 입증되었다.
6) 중류층 이상으로 선정하고자 한 것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주거욕구는 기본 생활 유지에만 극히 한정되어 나타나므로 주거생활양식 분류에 차이를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소유기기와 가구를 조사하였다. ⁷⁾ 시설물로는 상수도가 97.7%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시설이 60.7%로 가장 적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전국과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수준과 비교해 보면⁸⁾ 본 조사대상 가정이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는 냉장고 97.9%, 칼라텔레비전 94.7%, 전화 93.6%로 거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었고 피아노, 전자 및 전기레인지, 에어컨, 자동차, 비디오는 비교적 낮은 소유율(27%~36%)을 보이므로 아직 일반 가정에 많이 보급되지 않는 기기임을 알 수 있다. 소유가구로 부엌작업대는 79.1%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국 소유율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식탁, 소파, 침대는 입식생활을 위주로 하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일반화된 가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입식생활과 좌식생활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주거생활양식에 있어서 보편화되기 어려운 가구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택특성과 시설수준은 서울과 도시지역의 평균 시설설비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류층이상으로 한정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대체로 무리없이 분포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현재 주거생활조건에의 내용고찰

현재 주거생활조건에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생리적 건강성은 기본생활인 의, 식, 주거생활 유지와 햇빛, 통풍이 잘되며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2단계 안전

성은 도둑 및 재해, 재난으로 부터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3단계의 주변환경성은 교통의 편리성, 주위환경의 편의시설과 이웃관계, 집터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단계의 사회성 및 사교는 가족생활과 개인생활을 위한 독립성과 손님접대를 위한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생활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5단계 심미성은 주택의 외관, 실내의 조화미와 내부 장식적인 요소등이 아름다운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6단계 자아실현성은 주거에서 개인과 가족의 취미, 여가생활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7단계 신분상징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표현해 주는 주택의 조건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

이와같은 내용의 현재 주거생활조건을 조사하여 각 문항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생리적 건강성에 해당하는 조건에는 80.1%가 응답하였고 2단계 안전성은 66.6%, 3단계 주변환경성은 69.2%, 4단계 사회성 및 사교는 60.8%, 5단계 심미성은 24.5%, 6단계 자아실현성은 34.4%, 7단계 신분상징성은 9.6%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2,3,4 단계의 생활조건까지는 60%이상의 응답자들이 현재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5단계 이상의 생활조건은 대부분의 주택에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택의 기본생활유지와 가족생활을 위한 조건까지는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는데 비해, 그 다음의 단계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조건으로 거주자들의 주거가치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반적인 주택에서 모두 갖추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희(1982)의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력, 직업수준이 높고, 생활비가 많을수록 주택의 신분상징성이나 이웃과의 사교성, 주택의 심미성에 대한 사회, 심리적 욕구가 높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또한 Duncan & Duncan(1957)은 직업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주택을 존경의 상징으로 중요하게 간주한다고 지적한 내용과도 일치되고 있다.

7) 시설 설치물 5종류, 가구 4종류, 기기 11종류로 전체 20종류에 대한 소유 및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8) 전국 온수시설은 20.4%이고 서울에는 47.2%가 설치되어 있다(경제기획원 85년 기준).

9) 입식부엌의 보급율은 전국의 35.1%, 서울이 68.5%로 나타났다(경제기획원 자료 85년 기준).

2. 주거생활양식의 유형 분류

주거생활양식은 난방방법, 가구사용, 공간사용, 현재 주거생활조건을 관련변인으로 보았다. 난방방법은 개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새마을보일러, 연탄아궁이로 분류하였고, 가구사용은 가구사용 점수¹⁰⁾를 합하여 나타난 환산 점수로서 4단계로 분류하였다.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좌식형, 절충식1, 절충식2, 입식형으로 명명하였다. 공간사용은 안방중심형, 절충형, 거실중심형으로 분류하였고,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생리적 건강성과 안전성, 주변환경성, 사회성과 심미성, 자아실현성과 신분상징성을 한데 묶어 4단계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난방방법, 가구사용, 공간사용의 점수가 주어지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월생활비와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보고 그 점수의 예측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생활비와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므로서, 본 조사에 사용된 난방방법, 가구사용, 공간사용의 점수가 주어지는데 큰 무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표 1> 월생활비와 난방, 가구사용, 공간사용의 적률 상관계수(r)

	난방방법	가구사용	공간사용
생활비	.567***	.643***	.484***

또한 주거생활양식에 관련된 4가지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현재 주거생활조건¹¹⁾을 기

10) 가구사용 점수는 전체 8문항으로 한 문항을 1점에서 5점까지 주었다. 그리하여 전체 8점에서 40점까지로 8문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균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로 하여 1~1.9점, 2~2.9점, 3~3.9점, 4~5점까지 4단계로 분류되었다.

11)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판단되므로서, 이 변인과 다른 세가지 변인들의 차이점중으로 네가지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준으로 하여 난방방법, 가구사용, 공간사용과의 차이점중을 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생활조건과 난방방법, 공간사용, 가구사용은 서로 상대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주거생활조건이 생리적 건강성, 안전성, 주변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일수록 난방에 있어서 연탄아궁이를 많이 사용하며, 공간사용은 안방 중심형으로 공간이 미분화되어 있으며, 가구사용에 있어서도 좌식형과 절충식(1)에 해당하므로 현대식 기기 또는 가구를 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난방방법은 연탄보일러 또는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으며, 공간사용은 절충식 또는 거실중심으로 공간이 분화되어가고 있으며 가구사용도 절충식(2), 입식형에 해당하는 가정은 현재 주거생활조건이 사회성, 심미성, 자아실현성을 위한 생활조건이 갖추어진 가정이다.

그리고 공간사용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공간사용의 분류가 객관적인 예측타당성을 지닌 분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유형과 X²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한옥과 양옥식 단독주택에서는 주로 안방중심형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저층과 고층아파트에서는 거실중심형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절충형은 양옥식 단독주택과 저층, 고층아파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주택유형에 따라 난방방법, 주거생활조건에 차이, 내부 공간구조가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단독주택은 주로 안방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한편 거주자들의 생활에 따라서는 안방과 거실을 공동 사용하는 절충식 생활도 여러 주택유형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류된 공간사용은 주택유형에 차이를 주는 변인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러한 분류가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주거생활양식의 네가지 변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네가

(표 2) 주거생활조건에 따른 난방, 공간, 기구사용과의 교차분석(X²)

N=1,292

물리적인 주거조건	난 방 방 법			공 간 사 용			가 구 사 용			전 체	
	연탄아궁이 (채대식) 빈도(%) 기대빈도	연탄세마을 보일러 빈도(%) 기대빈도	연탄보일러 빈도(%) 기대빈도	개스·기름 보일러 빈도(%) 기대빈도	안 방 중심형 빈도(%) 기대빈도	질충형 빈도(%) 기대빈도	거 실 중심형 빈도(%) 기대빈도	좌식형 빈도(%) 기대빈도	질충식(1) 빈도(%) 기대빈도		질충식(2) 빈도(%) 기대빈도
주거생활 조건											
생리적 건강성	4(0.30)	48(3.72)	136(10.54)	53(4.11)	153(11.85)	52(4.02)	36(2.78)	38(2.94)	86(6.66)	59(4.57)	58(4.49)
안전성	3.4	42.0	116.6	79.0	133.4	54.8	52.8	29.3	59.5	66.3	85.9
주변환경성	4(0.30)	103(7.98)	157(12.17)	77(5.97)	236(18.26)	55(4.26)	50(3.86)	70(5.42)	96(7.44)	87(6.74)	88(6.82)
안정성	4.7	59.3	164.5	111.5	188.2	77.3	74.4	41.5	84.3	93.8	121.5
사회성	7(0.52)	50(3.87)	214(16.55)	160(12.38)	222(17.18)	118(9.13)	91(7.04)	33(2.56)	94(7.28)	134(10.38)	170(13.09)
심미성	6.0	74.8	207.5	140.7	237.5	97.6	93.9	52.3	106.3	118.2	153.2
자아실현성	4(0.30)	24(1.86)	118(9.15)	133(10.28)	103(7.97)	70(5.43)	106(8.22)	16(1.24)	43(3.33)	75(5.81)	145(11.23)
신분상징성	3.9	48.8	135.4	91.8	153.9	63.2	60.9	33.9	68.9	76.7	99.4
빈도	19	225	625	423	714	295	283	157	319	355	461
전체 (%)	(1.42)	(17.43)	(48.41)	(32.74)	(55.26)	(22.84)	(21.90)	(12.16)	(24.71)	(27.50)	(35.63)
X ²		101.827***			90.201***				107.597***		

*** P < .001

〈표 3〉 공간 사용에 따른 주택유형과의 교차분석(X*)

주택유형	한옥식	양옥식	저층	고층	연립주택	다세대	상가	계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주택	아파트	
공간사용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
	기대빈도	기대빈도	기대빈도	기대빈도	기대빈도	기대빈도	기대빈도	
안방중심형	214(16.8) 139.8	239(18.8) 223.9	91(7.1) 132.6	23(1.8) 104.5	47(3.7) 45.7	68(5.3) 40.7	19(1.6) 13.8	701 (55.1)
절충형	28(2.2) 58.2	103(8.1) 93.3	76(6.0) 55.2	52(4.1) 43.5	26(2.0) 19.0	4(0.3) 17.0	3(0.2) 5.7	292 (22.9)
거실중심형	12(0.9) 56.0	65(5.1) 89.8	74(5.8) 53.2	115(9.0) 41.9	10(0.8) 18.3	2(0.2) 16.3	3(0.2) 5.5	281 (22.0)
계 빈도 (%)	254 (19.9)	407 (32.0)	241 (18.9)	190 (14.9)	83 (6.5)	74 (5.8)	25 (2.0)	1,274 (100.0)
X ²	371.90***							

*** P<.001

지 변인은 주거생활양식을 결정짓는 변인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Cluster Analysis¹²⁾에 의해 유형분류를 하였다.

Cluster Analysis는 임의의 수로 군집의 수 즉, 7, 6, 5, 4 및 3개의 군집을 지정하여 동시에 결과를 출력하도록 프로그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분석에서 채택할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군

〈표 4〉 주거생활양식의 유형분류

N=1,292

변인	유형분류				
	1	2	3	4	5
가 구 사 용 ¹⁾	1.752	1.790	2.789	3.614	3.878
공 간 사 용 ²⁾	1.088	1.095	1.294	2.235	2.511
난 방 ³⁾	1.608	2.935	1.772	2.856	3.934
현재주거생활조건 ⁴⁾	1.556	3.079	3.154	1.450	3.220
N	328	63	409	140	352

- 1) 가구사용 점수는 1~1.9점=1점, 2~2.9점=2점, 3~3.9점=3점, 4~5점=4점으로 다시 환산하여 1~4점 범위로 하였다.
- 2) 공간사용 점수는 안방중심형=1점, 안방과 거실의 절충형=2점, 거실중심형=3점으로 하여 1~3점의 범위로 하였다.
- 3) 난방방법은 연탄아궁이=1점, 연탄 새마을보일러=2점, 연탄보일러=3점, 개스보일러·기름보일러=4점으로 1~4점의 범위로 하였다.
- 4) 현재 주거생활 조건은 생리적 건강성, 안전성=1점, 주변환경성=2점, 사회적 심미성=3점, 자아실현성과 신분상징성=4점으로 하여 1~4점의 범위로 하였다.

12) Cluster Analysis는 유형 분류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법으로 다차원 공간에 자리잡은 각 대상들을 서로 가까운 것 끼리는 모으고, 먼 것 끼리는 분리하도록 하여 상대적인 몇 개의 집단(Cluster)으로 묶는 작업이다.

집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생활양식을 유형 분류하는데 있어서 가장 타당한 군집의 수는 5개를 지정한 경우였다. 왜냐하면 네가지 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볼 때, 비교적 주거생활양

식의 유형별 특성을 설명해 주는데 가장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군집5의 유형을 <표 4>와 같이 각 변인들에 의한 평균값으로 제시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네가지 변인의 평균값이 모두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가구사용은 좌식가구를 주로 사용하며, 공간이 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방은 연탄아궁이식의 재래식 난방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기본생활을 위한 생리적 건강성과 안전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재래식 기본생활 유형이라 하였다.

제2유형은 가구사용과 공간사용은 낮은 점수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난방방법과 주거생활조건은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좌식가구의 사용과 공간의 미분화가 두드러지며, 난방은 연탄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며 현재 주거생활 조건은 심미성과 사회성에 대한 생활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재래식 가족중심생활 유형이라 하였다.

제3유형은 공간사용과 난방방법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가구사용은 중간점수를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 유형은 절충식 가구사용과 공간의 미분화를 의미하며, 난방방법은 연탄아궁이식인데 비하여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심미성과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절충식 가족중심생활 유형이라 하였다.

제4유형은 가구사용과 공간사용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데 비하여 난방방법은 중간점수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유형은 입식가구를 주로 사용하며, 공간도 점차 분화되어감을 의미하며, 난방방법은 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며, 주거생활조건은 기본생활유지를 위한 생리적, 안전성의 생활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현대식 기본생활 유형이라 하였다.

제5유형은 네가지 변인이 모두 높은 점수를 나

타낸 집단으로 입식가구의 사용과 공간이 분화되어짐을 의미한다. 난방방법은 기름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며, 현재 주거생활조건은 주거 공간내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취미, 여가생활이 가능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을 현대식, 사교 여가생활 유형이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유형별 평균값과 특성을 살펴보고 <표 5>와 같이 5개의 군집에 대해 그 유형을 명명하여, 주거생활양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명명된 5개의 군집을 정준판별함수(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에 의해 분석해 본 결과 <표 6>과 같이 CAN1, CAN2, CAN3, CAN4의 수식이 나타났다. CAN의 함수는 군집에서 가장 설명력있는 함수들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가운데 가장 설명력 있는 함수 CAN1¹³⁾과 CAN2¹⁴⁾를 선택

<표 5> 5개의 군집 유형 이름과 분포

군집번호	명명된 주거생활양식 유형	f(%)
1	재래식 기본생활 유형	328(25.4)
2	재래식 가족중심생활 유형	63(4.9)
3	절충식 가족중심생활 유형	409(31.7)
4	현대식 기본생활 유형	140(10.8)
5	현대식 사교·여가생활 유형	352(27.2)

<표 6> 정준판별함수 결과 나타난 판별계수들의 값

CAN. FUN. 변인	CAN 1	CAN 2	CAN 3	CAN 4
공 간 사 용	0.5673	-0.6611	0.3114	-1.2239
난 방 방 법	1.3919	-0.5654	-1.3684	0.5447
가 구 사 용	0.7540	0.3624	1.4029	0.7076
주거생활조건	0.6917	1.4212	-0.3081	-0.2673

- 13) CAN1은 첫번째 정준판별함수로 그룹과 판별변수와의 다중 상관관계를 최대로 하는 즉, 함수위에서 그룹간의 평균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기 위하여 최대한 분리시키는 정준계수와 판별변수의 선형결합으로 부터 유도되는 것이다.
- 14) CAN2은 두번째 정준판별함수로서 첫 함수의 값들이 이것과 상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각 그룹별 중심값(Controid)의 차이를 최대로하는 선형결합이다.

15) 하여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CAN1 = (0.5673)SP + (1.3919)HE + (0.7540)FU + (0.6917)HC$$

$$CAN2 = (-0.6611)SP + (-0.5654)HE + (0.3624)FU + (1.4212)H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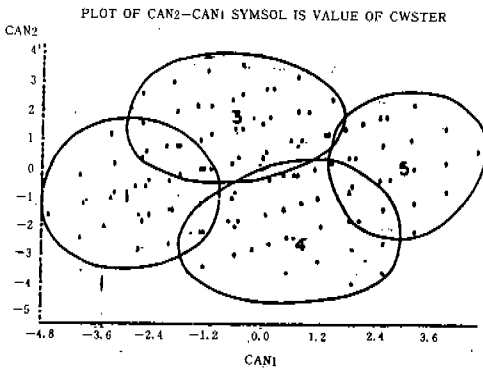
SP : 공간사용

HE : 난방방법

FU : 가구사용

HC : 주거조건

이렇게 수식화된 CAN1과 CAN2의 값을 평면상에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은 군집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즉, 제2군집은 전체 표본수의 4.9%로 매우 적은 유형으로 다른 군집들과 혼재되어 나타나 뚜렷한 군집의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1군집, 제3군집, 제4군집, 제5군집은 뚜렷하게 다른 군집들과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점준판별계수에 의한 CAN1과 CAN2의 선형 결합된 군집형태

15) CAN1과 CAN2의 수식을 선택한 것은 4개의 수식을 평면상에 모두 표현할 수 없으므로 가장 설명력있는 두 함수를 선택하여 평면상에 나타나는 군집의 형태를 보고자 한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 분류된 주거생활양식 유형은 제1유형(25.4%)과 제2유형(4.9%)이 재래식의 좌식형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주거생활조건은 기본생활조건인 생리적 건강성, 안전성과 주변환경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유형과 좌식생활을 하면서 주거생활조건은 자아실현성의 생활조건도 갖추어져 있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3유형(31.7%)인 질층식 가족중심생활 유형은 좌식과 입식의 질층생활하고 있는 현대 주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제4유형(10.8%)과 제5유형(27.2%)은 현대식 입식가구의 사용과 공간사용의 분화가 두드러지며, 이 양식의 유형도 주거생활조건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식 생활을 하면서 주거생활조건은 기본 생활수준에 있는 유형의 경우와 주거생활조건이 자아실현과 사고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보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주거생활양식은 현대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대표될 수 있는 주거생활양식 유형으로 보여지며 앞으로의 주택계획에도 반영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사회 인구학적특성 및 주택특성과 주거생활양식과의 관계

사회 인구학적특성 변인은 가장의 직업, 월생활비, 주부교육수준, 가정생활주기, 가족수로 하였고 주택특성변인은 거주기간, 주택건축년한, 주택소유상태, 주거면적, 주택의 시설수준으로 하였다.

사회 인구학적특성 변인과 주택특성 변인들 가운데 주거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변인을 찾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은 주택의 시설수준(.752), 주부교육수준(.313), 월생활비(.196),

가정생활주기¹⁶⁾(.177), 가장의 직업(.122)이 주거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의 시설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재래식 생활양식보다는 절충식, 또는 현대식 사교, 여가 생활유형에 가까운 생활양식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생활

비가 많을수록, 가정생활주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장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생활양식은 현대식 입식생활로 공간이 점차 분화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생활조건도 사교와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택특성과 주거생활양식과의 중다회귀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택특성		주거생활양식		
		Coefficient	β	
사회 인구 학적 특성	가 장 의 직 업	.1532	.1224***	R ² =.262 Adjusted R ² =.259 F=89.138 df=5 & 1,255
	생 활 비	.1832	.1963***	
	주 부 교 육 수 준	.3483	.3126***	
	가 정 생 활 주 기	.0329	.1767***	
	가 족 수	—	—	
주 택 특 성	거 주 기 간	—	—	R ² =.600 Adjusted R ² =.598 F=2382.306 df=5 & 1,272
	주 택 건 축 년 한	—	—	
	주 택 소 유 상 태	—	—	
	주 거 면 적	—	—	
	주 택 의 시 설 수 준	.2436	.7521***	

*** P<.001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주거생활양식이 가구사용의 입식화와 공간사용의 분화현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의미하며, 또한 주거내의 생활이 가족을 중심으로 현대식 사교, 여가를 위한 주거생활양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생활양식과의 차이점을 위해 교차분석(X²)을 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차이점중 결과 기대빈도와 관찰빈도를 비교해 볼 때 집합주택인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에서는 주로 현대식 사교, 여가생활유형이 많이 나

타고 있는데 비하여 양육형, 단독주택과 한옥형 단독주택에서는 주로 절충식 가족중심생활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집합주택인 아파트는 난방방법이 중앙공급식 형태의 보일러가 주로 사용되며 평면구조에 있어서도 공동생활 공간과 개인생활공간이 구분되어져 공간의 분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처리되어 있어 현대식 생활양식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비하여, 단독주택은 난방방법도 국부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으며 평면구조에 있어서도 공간의 분화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절충식의 생활유형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옥형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및 기타의 주택유형에서는 재래식 기본생활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난방방법도 주로 재래식인 연탄아궁이를 사용하고, 공간사용도 미분화되어 있으며,

16) 가정생활주기는 부부의 연령, 만자녀의 나이를 합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여 4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만자녀 연령을 중심으로 ①초창기 ②확대기 ③팽창기 ④축소기로 분류한 결과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표 8〉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생활양식과의 교차분석

N=1, 278

주거생활양식	재래식 기본 생활 유형	재래식가족중심 생활 유형	절충식가족중심 생활 유형	현대식 기본 생활 유형	현대식 사교 여가생활유형	계 빈도 (%)
	빈도(%) 기대빈도	빈도(%) 기대빈도	빈도(%) 기대빈도	빈도(%) 기대빈도	빈도(%) 기대빈도	
고 층 아 파 트	2(0.2) 47.5	11(0.9) 9.4	1(0.1) 60.4	32(2.5) 20.9	145(11.3) 52.8	191 (15.0)
양 옥 단 독 주 택	75(5.9) 101.5	23(1.8) 20.1	179(14.0) 129.0	45(3.5) 44.7	86(6.7) 112.7	408 (31.9)
저 층 아 파 트	41(3.2) 60.2	8(0.6) 11.9	53(4.1) 76.5	36(2.8) 26.5	104(8.1) 66.8	242 (18.8)
한 옥 단 독 주 택	110(8.6) 63.5	12(0.9) 12.6	115(9.0) 80.6	11(0.9) 27.9	7(0.6) 70.4	255 (20.0)
연립주택 및 기타	90(7.0) 45.3	9(0.7) 9.0	56(4.4) 57.5	16(1.3) 19.9	11(0.9) 50.3	182 (14.3)
계 빈도 (%)	318 (24.9)	63 (4.9)	404 (31.6)	140 (11.0)	353 (27.6)	1,278 (100.0)
X ²	533.07***					

*** P<.001

따라서 평면구조에 있어서도 재래식 생활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택유형에 따라서 주택내부구조 및 시설설비의 특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므로서 주거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생활에서 대표되는 주거생활양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영향변인을 찾아 구체화하므로서 현대 주거생활양식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생활에서 대표되는 주거생활양식 유형은 5가지로 분류되었다. 즉 재래식 기본생활유형, 재래식 가족중심생활유형, 절충식 가족중심생활유형, 현대식 기본생활유형, 현대식 사교, 여가생활유형으로 연구자에 의해 명명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은 절충식 가족

중심생활 유형(31.7%)이었고,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재래식 가족중심생활유형(4.9%)이었다. 그리고 재래식 생활유형과 현대식 생활유형을 비교해 보면 현대식 유형은 38.0%이고, 재래식 유형은 30.3%로 점차 현대식 생활유형으로 변화되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현대 주거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는 주택의 시설수준, 주부교육수준, 월생활비, 가정생활주기, 가장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변인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생활양식의 현대식 변화는 곧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관련되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현대 주거생활양식은 주택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집합주택인 아파트의 유형과 양옥식 단독주택과 한옥식 단독주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에서는 주로 현대식 가족중심, 사교, 여가생활유형이 나타났고, 양옥식 단독주택에서는 절충식 가족중심

생활유형, 한옥식 단독주택에서는 재래식 기본생활유형 또는 절충식 가족중심생활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택의 평면구조와 주거생활양식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평면구조와 형태가 주거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 결과는 현대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주거생활양식을 분류하고 체계화시켜 준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미래의 주택계획에 올바른 방향제시에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한된 지역, 계층을 좀 더 확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주거생활양식의 연구가 더욱 깊이있게 연구되어질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1. 김미희(1982), "주거선택 행동에서 나타난 주거욕구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차배근(1981), 사회과학 연구방법, 세영사.
3. 최목화(1987), "현대 한국 주거의 질적인 수준 예측을 위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최목화(1987), "주거가치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4호.
5. 최병숙(1984),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사용 실태와 주거욕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Aldenderfer, M.S. and R.K. Blashfield(1984), Cluster Analysis, serie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Sage Publications, Inc.
7. Beyer, G.H., Thomas W. Mackesey and James E. Montgomery(1955), Houses are for People, Housing Research cente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8. Cooper, C.(1974), "The Houses as a Symbol of the self",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Stroudsburg, P.A.: Dowden Hutchinson and Ross.
9. Duncan, D.D. and B. Duncan(1957),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Occupational Stratification", in Hatt, Paul K. and Reis, Albert J., Cities and Society, N.Y.: The Fress Pree, revised ed.
10. Faulkner, R. and S. Faulkner(1975), Inside Today's Home, Holt, Rinehart and Winston, 4th ed.
11. Feldman, S.D. and G.W. Thielbar(1975), Life Styles - Diversity in American Society, Little, Brown and Co., 2nd ed.
12. Max Weber(1968), Economy and Society, Bedwinster Press, N.Y.
13. Montgomery, J.E.(1976), "The housing environment: crises and challenges", Conference Proceedings, Second Annual Meeting: America Association of Housing Educators, Purdue Univ.